

내 인생 첫 동아



DAMG 신입사원 탄생기

굿피플

사진 경영전략실 인재경영팀 송상훈·채널A비엔씨 최종범

→ 2면에 관련 기사

지난해 12월 입사한 동아일보·채널A 미디어경영직군 신입사원들이 4월 18일 제주도의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채널A 프로그램 <굿피플> 포스터를 패러디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신입사원들은 4월 17~19일 워크숍을 위해 제주도를 찾았다. 왼쪽부터 유영재 채널A 미디어커머스터 매니저, 김태연 동아일보 경영교육팀 매니저, 이용호 동아일보 AD1팀 매니저, 신한솔 채널A 2theC스쿼드 매니저, 여윤석 동아일보 출판광고팀 매니저, 김경민 채널A 미디어플러스팀 매니저, 문훈복 동아일보 마케팅본부 지원팀 매니저, 정현지 채널A 1theC스쿼드 매니저, 차석진 동아일보 경영기획팀 매니저, 윤수경 채널A 콘텐츠세일즈팀 매니저, 김형석 채널A 미디어커머스터 매니저.

규제 공화국 허물고... 청년들의 꿈 응원하고

새롭게 선보인 동아일보 창간 100년 맞이 기획

“핵심을 짚었다.”

창간 99주년을 맞은 4월 1일 동아일보 100주년 맞이 기획 '대통령 위에 공무원, 규제공화국에 내일은 없다'가 보도되자 정치권, 관가, 재계 등에서 이 같은 평가가 이어졌다. 기존 보도와 달리 역대 정부가 규제혁파에 실패한 가장 큰 원인으로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정조준 했기 때문이다. 규제혁파를 100주년 맞이 기획으로 내세운 이유는 변화 없는 대한민국 미래 세대에 기회를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본보 기획은 약 2달간의 치밀한 준비를 통해 빛을 볼 수 있었다. 편집국 특별취재팀 기자들은 10층에 마련한 베이스캠프에 모였다. 매주 2차례 이르면 전 인사 처장과 김태유 서울대 교수 등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세미나를 열었다. 자유토론과 브레인스토밍이 이어졌다. 100여 개 스타트업 기업 관계자들과 설문조사하고

심층 인터뷰한 결과를 생생하게 지면에 소개했다. 경영학계의 아인슈타인으로 불리는 클레이턴 크리스텐슨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석좌교수 등 해외 전문가와 소통한 내용도 반영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본보 기획이 시작된 뒤 사흘만인 4일 “현장에서는 규제 혁신을 충분히 실감하지 못한다고들 말한다”며 공식사회를 질타했다. 이후 매주 차장관들이 참석하는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한 달 내내 규제혁파를 안건으로 채택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성이 필요한 보직은 2년 임기를 보장하고, 인사나 평가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히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도 이끌어냈다.

또 다른 100주년 맞이 기획 '부장님처럼 살기 싫어요-청년들의 新성공법칙'엔 꾸준히 청년 문제에 관

심을 기울여 온 동아일보의 고민을 고스란히 담았다. 3월초 편집국 특별취재팀이 구성됐다. 취재팀은 기성세대 식 성공법칙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걷는 청년 30여명을 만나 심층 인터뷰했다. 또 청년 450여명을 설문조사해 젊은이들이 바라는 삶과 행복, 목표, 성공에 대해 분석했다.

쌍방향 소통을 하기 위해 대나무숲@메일을 개설해,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청년들의 사연을 국내 유명 웹툰 작가들에게 전달한 후 이를 토대로 웹툰을 그리게 했다. 청년의 달라진 성공법칙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웹툰X뉴스' 콜라보를 시도하기 위해서다. 첫 보도가 나온 후 공감한다는 독자들의 댓글 수백 개가 기사에 달렸다.

편집국 정치부 김진균·정책사회부 김윤중



창간 99주년을 맞은 동아일보의 100주년 맞이 기획 지면.

신입 기자·PD들의 치열한 면수습기

첫 직장 생활, 그리고 나의 꿈

“혹시 배우 박정민 씨 아니세요?”

드라마 촬영 현장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한 시민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신없이 늘어진 장비들 사이, 박정민을 ‘닮은’ 청년이 고개를 들었다. “아니긴 한데요. 성대모사는 할 수 있어요. ‘한가울(박정민이 출연한 영화 속 여배우의 이름) 예뻐요.’ 어때요. 똑같죠?”

현장의 스태프들은 이 ‘어설픈’ 성대모사에 웃었다. 잠시나마 피로를 잊었다. 이 청년은 항상 그랬다. 잠이 부족해 눈이 벌겍게 충혈 되고 입술이 부르르

도 분위기에메이커를 자청했다. 또 가장 먼저 나와 촬영장을 챙겼다.

주인공은 2018년 9월 입사해 막 수습 딱지를 댄 채널A 드라마센터 김영준 PD. 김 PD는 “수습을 거치면서 현장은 ‘같이’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곳이란 걸 실감했다”고 했다. 또 “입사 전에는 혼자 품 나게 기획하고 제작하겠단 욕심이 컸다. 이젠 고단한 새벽을 함께 헤쳐 나갈 든든한 동료가 되겠다는 목표가 생겼다”며 웃었다.

동아미디어그룹(DAMG)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해 입사해 좌충우돌 적응기를 거쳐 열정과 포부를 자랑분으로 막 뿌리를 내린 막내들 덕분이다. 동아일보 편집국신문기자 10명에 채널A 보도본부 방송기자 9명과 제작본부 PD 4명, 드라마센터 PD 1명. 여기에 미디어경영직 12명까지 총 36명의 신입사원들은 각각 조직에서 든든한 기둥이 될 준비를 마쳤다.

동아일보 편집국 사회부 사건팀 막내 한성희 기자. 수습 생활 반년을 돌이켜보면 분 단위로 이어진 숨 막힌 순간들이 눈에 아른거린다. 하루에도 몇 번씩 새로운 사건 현장, 10분 단위로 이어진 선배의 ‘송곳’ 지시, 취재원과의 팽팽한 신경전... 잠입취재 중 경찰로부터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냐”는 고성을 들었던 적도 다반사. 그래도 그런 가운데 어떤 경찰은 바나나 우유와 크림빵을 사서 건네 줬다. 현장을 누비며 건진 작은 ‘단뿔’ 기사를 두고 선배가 통명스럽게 “수고했다”고 한 마디 해줬을 땐 가슴이 몽클했다. 한 기자는 “정신없이 지나고 보니 선배들이 애기한 ‘동아 DNA’를 몸으로 느낄 것 같다”고 전했다.

채널A 보도본부 사회부의 여현교 기자는 “6개월이란 짧고도 긴 ‘터널(수습 기간)’을 지나며 얻은 가장 소중한 자산은 인간관계”라고 말했다. 수습 땀 일선에서 굵직한 특종으로 채널A 간판을 알린 선배들을 보며 업무를 배웠다면 이젠 그런 선배들과 인간적인 고민까지 나누며 기자의 사명감도 느끼게 됐다. 동고동락하며 가족 못지않게 나누고 의지한 동기들 역시 믿음직스러운 존재. 여 기자는 “이제 다시 ‘처음’이란

신호등 앞에 서 긴장 된다”면서 “그래도 든든한 선배와 동기들과 함께 가는 거라 기대 된다”며 웃었다.

미디어경영직으로 입사해 경영전략실 경영기획팀에 배치 받은 차석진 매니저는 어제처럼 오늘도 바쁘다. 경영계획 수립 등 굵직한 업무가 이어져 연일 숫자와 씨름 중이기 때문. 특유의 선량한 미소를 얼굴 한 가득 머금고 차 매니저는 “요즘 ‘진심’ 행복하다”고 했다. “동아미디어그룹 특유의 밀어주고 끌어주는 협업 문화가 좋습니다.”

이미 4개월가량 현장에서 ‘DAMG DNA’를 느낀 미디어경영직 신입사원들은 4월 2박3일 일정으로 제주 워크숍을 다녀왔다. 이들은 제주도에서 ‘1년 후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면서 수습 기간을 돌아보고 미래를 그려봤다. ‘제주 해저 2만리’(서귀포 잠수함) ‘숲으로 가는 기차’(애코랜드 테마파크) 일정을 통해 잠시나마 업무를 벗어나 ‘힐링 타임’을 갖기도 했다. 저녁 프로그램인 ‘제주도의 푸른 밤’은 동기들끼리 수습을 마친 소감과 앞으로의 포부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사장은 ‘CEO와 Talk & Talk’ 시간을 통해 신입사원들과 진솔한 얘기를 나누고, 오설록 티뮤지엄에서 함께 다도(茶道) 체험을 하는 등 1박2일 동안 일정을 함께 했다. 경영전략실 미디어어플러스트팀 김경민 매니저는 “사장님께서 격의 없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늦은 시간까지 꼼꼼하게 저희 얘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다”고 웃었다. 경영전략실 인재경영팀 신진우



촬영 중 지쳐 벽에 기대어 잠들어 있는 김영준 채널A PD. 수습기간을 마친 후 시원섭섭함을 담아 경찰서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여현교 채널A 기자. 사원증을 들고 활짝 웃고 있는 차석진 동아일보 매니저. 서울 서부경찰서 형사과 경찰들과 야식을 함께 먹고 있는 한성희 동아일보 기자(사계방향).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사장(맨 뒷줄 가운데)이 미디어경영직 신입사원들과 제주도 워크숍에서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화문 핫 스팟으로 떠오른 ‘한국의 색’ 동아미디어센터

러시아 음악전문채널 ‘서울 랜드마크’로 소개

SNS마다 사진 공유 “너무예뻐” “외국같아”

프랑스 현대미술가 다니엘 뷔렌의 공공예술 작품 ‘한국의 색’이 설치된 동아미디어센터가 러시아의 음악전문 케이블 채널 ‘MTV 러시아’를 통해 서울 광화문의 대표 랜드마크로 소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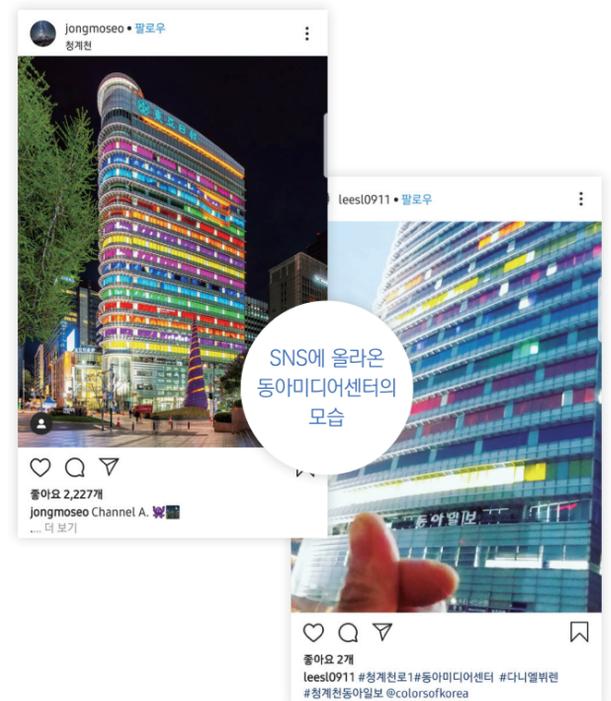
러시아에서 K-POP과 드라마 등 한국 문화를 주제로 제작된 최초의 예능프로그램인 ‘K-POP MTCamp’의 우승자 5명과 방송 관계자들이 4월 24일 동아미디어센터를 방문했다. K-POP MTCamp는 한류와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해 한국으로 여행을 떠날 최종 우승자를 선발하는 과정을 담아 지난달부터 방영되고 있는 리얼리티 쇼다. 참가 신청에 3000여 명이 몰렸고, K-POP 댄스 및 작사, 한국 예능

따라하기, 한국 관련 퀴즈 등을 통해 밝힌 최종 5명이 한국관광공사의 지원으로 한국에 오게 됐다. 방송팀 인솔자인 하르첸코 엘레나 한국관광공사 모스크바지사 매니저는 “역사 테마와 케이팝 테마로 일정을 짜던 중 뷔렌의 ‘한국의 색-인 시투’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며 “역사 유적과 현대 미술이 조화를 이룬 분위기가 인상적”이

라고 말했다. 동아미디어센터는 온·오프라인에서 광화문의 ‘핫 스팟’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SNS상에서 동아미디어센터를 배경으로 다양한 각도로 사진을 찍고 공유하는 게시물들이 늘고 있다. ‘외국같다’ ‘한참을 쳐다봤다’ ‘알록달록 너무 이쁘다’ 등의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 뉴센테니얼본부 씽크퓨처팀 김성규



사진 사진부 전영현



SNS에 올라온 동아미디어센터의 모습

러시아 음악전문채널 ‘MTV 러시아’의 케이팝 엔터캠프(K-POP MTCamp) 방송 우승자들이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를 배경으로 촬영하고 있다. 6월 현지 방송 예정으로 우승자 명단이 알려지지 않아 뒷모습만 담았다.



사진 사진부 김동주

동아일보 축구팀이 4연패를 달성한 직후 결승전 경기를 관람한 동아일보 임직원들과 함께 활짝 웃으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아일보 사상 첫 4연패 달성

기협축구, 채널A는 8강
신흥 다크호스로 급부상

동아일보가 한국기자협회 축구대회에서 사상 첫 4연패를 달성했다.

동아일보는 4월 27일 서울 중랑구 중랑구립잔디운동장에서 열린 제47회 한국기자협회 서울지역 축구대회 결승전에서 매일경제를 2-0으로 꺾고 4년 연속 정상에 올랐다. 동아일보는 1972년 제1회 대회에서 우승한 뒤 2011년, 2016년, 2017년, 지난해에 이어 통산 여섯 번째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올해 대회에서 이호재 기자는 대회 최우수선수상(MVP)을 받았고, 김성모 기자가 득점왕(4골)에 올랐다.

동아일보의 빈틈없는 수비력과 '강철' 체력은 이번 대회에서도 여전히 빛났다. 경기를 거듭할수록 조직력도 살아나면서 3년 연속 전 경기 무실점을 기록했다. 지난해 챔피언으로 1번 시드를 받아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동아일보는 32강에서 YTN을 1-0으로 제압한 뒤 한국일보(1-0), 이데일리(승부차기 4-2), 이투데이(3-0)를 잇따라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채널A 축구팀도 올해 대회에서 8강 진출이라는 사상 최고 성적을 거뒀다. 예선 1차전에서 MTN(2-0)을 꺾은 채널A는 브릿지경제(승부차기 3-1)에 이어 지난해 준우승팀 더벨(승부차기 4-1)을 차례로 이긴 뒤 8강에 올랐다. 4강에 오를 경우 동아일보와 '한지붕 혈투'가 벌어질 수도 있는 대진이었다. 아쉽게 이투데이에게 승부차기로 2-3으로 패하면서 '동아 대비'가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선수들은 내년을 기약하며 아쉬움을 달랬다.

4연패라는 대기록은 동아일보와 채널A가 '원 팀'이 됐기에 가능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동아일보 축구팀은 채널A와 함께 2월 말부터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훈련을 진행했다. 채널A 축구팀 주장인 김기용 기자는 "아침마다 함께 훈련하면서 신문과 방송이 하나됨을 느꼈다"고 말했다. 수준 높은 플레이로 동아일

보의 '혹독한' 연습 상대가 되어 준 동우 축구팀의 공도 컸다.

대회 기간 내내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사장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들이 하나로 뭉쳐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 소속 팀원들은 김성모 기사를 위해 '날아라 동아 메시 김! 성! 모!'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손수 제작해와 열띤 응원을 펼쳐 눈길을 끌기도 했다.

동아일보 축구팀(편집국 문화부) 신규진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채널A 축구팀이 8강전이 끝난 뒤 함께 플래카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예능판 '미생' <굿피플>이 그려내는 섬세한 인턴 사원의 감정

<굿피플> 웰컴 키트, '국민청원' 캠페인 등
브랜드 커머스·화제성 몰이 활발

채널A 신규 예능 <신입사원 탄생기-굿피플>이하 <굿피플>이 방송 2회 만에 높은 화제성을 기록하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굿피플>은 사회초년생의 성장스토리를 그려낸 신 개념 리얼 오피스 예능이다. <하트시그널> 제작진의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으로 방송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첫 방송 후엔 '예능판 미생'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굿피플>은 첫 출근한 인턴 8명의 감정선을 디테일한 편집으로 표현했다. 누구나 겪었을 사회 초년생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 시청자들의 깊은 공감감을 받았다. 채널A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1회 방송의 풀 버전은 공개 열흘 만에 35만 이상 조회수를 기록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 및 실시간 오락 TV 검색어 1위에도 올랐다.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자 인턴 8명 개개인의 개

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반골 기질이 있다'는 솔직한 면접 답변으로 눈길을 끌었던 임현서 인턴은 과제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며 자신만의 캐릭터를 확고히 구축했다. 서글서글한 인상의 이상호 인턴은 첫 과제에서 냉혹한 평가를 듣고, 둘째 날 지각하는 모습까지 보이지만 '반전이 기대 된다'는 평을 얻고 있다. 첫 과제를 늦게 제출했지만 좋은 성적을 거둔 이시훈 인턴에 대해서는 '보는 내가 더 조마조마하다'며 공감이 쏟아지고 있다. 회를 거듭할수록 인턴들의 매력은 물론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연들도 드러내며 재미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굿피플>은 첫 방송 전부터 화제성 붐업(Boom-Up)을 위해 프로모션과 미디어 커머스에 힘썼다. '국민청원'을 모티브로 한 '굿피플' 프로모션에선 직장인 수백 명의 사연을 접수 받은 뒤 12명의 사연을 강남역 6번 출구에 오프라인 광고로 노출시켰다. 직

장인의 생활을 재치 있게 풀어내 직장인들의 호응도가 높은 '그림양 양치기' 양경수 작가와의 협업으로 손목보호 마우스패드, 콜라보 굿즈를 만들었다. 또 알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 모양의 충천식 수면등, 신입사원들의 필수품 텀블러 등이 관련 굿즈로 출시돼 인기를 얻고 있다. 편성본부 콘텐츠커뮤니케이션팀 노수아



<신입사원 탄생기-굿피플> 로펌 인턴들이 사무실에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굿피플> 방송 캡처.

DAMG 크리에이터 시대 막 올랐다

9개 수상작 선정... 콘텐츠 제작 협업

동아미디어그룹의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뽑는 '담지(DAM-G) 크리에이터 Acceleration'의 수상작이 공개됐다.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 19'도 문을 열었다.

2월 25일부터 3월 8일간 진행된 담지(DAM-G) 크리에이터 Acceleration에는 88개 팀(팀원 총 120명)의 아이템 128개가 경쟁을 벌였다.

크리에이티브 분야와 디지털뉴스 분야로 나눠 총 9개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크리에이티브 분야는 많은 구독자를 확보하는 동시에 젊고 신선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 수상작을 정했다.

강홍구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기자의 <본격 흥런 채집 꿀팁 '흥런 원정대'>, 권예림 채널A 드라마센터 PD의 <OFTD(Only For Three Days): Journey to healthy life>, 김민 동아일보 편집국 기자의 <그림 읽어주는 기자>, 장욱진 채널A 콘텐츠사업본부 매니저와 이유진 채널A 경영전략실 매니저의 <My P.P Bible>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디지털뉴스 분야 수상작은 취재 관련 아이템 중 발전 가능성이 있는 5건의 아이템을 동아일보와 채널A 디지털뉴스팀이 각각 선정했다.

동아일보 출판국 허만섭 기자의 <국방 이야기>, 출판국 송홍근 기자의 <북한드라마 만들어봐요>, 편집국 변종국 기자의 <항출기(항공 출입 기자)>는 동아일보 디지털뉴스팀과 협업하게 된다. AD본부 김상운 기자의 <유튜브로 만나는 '한국의 인디아나존스들'>



'담지(DAMG) 크리에이터 Acceleration' 수상자들이 19층에 새로 문을 연 '스튜디오 19'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 아래부터 강홍구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기자, 변종국 동아일보 편집국 기자, 김민 동아일보 편집국 기자, 권예림 채널A 드라마센터 PD, 출판국 송홍근 기자, AD본부 김상운 기자, 출판국 허만섭 기자, 이유진 채널A 경영전략실 매니저(반시계방향).

과 미디어연구소 하종대 부국장의 <이슈현장, 하종대가 간다>는 채널A 디지털뉴스팀과 새로운 콘텐츠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수상팀에게는 각각 100만 원 상금이 주어진다. 크리에이티브 분야 수상팀은 경영전략실 1·2theC스쿼드와 함께 콘텐츠를 만들게 된다. 디지털뉴스

분야는 1·2theC스쿼드의 기획 브랜딩 과정을 거친 뒤 디지털뉴스팀과 콘텐츠를 만든다.

한편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 19층에 새로 문을 연 '스튜디오 19'는 4K(UHD TV 수준) 해상도 카메라, 삼각대, 무선 마이크, 조명 2대, 모니터링 장비를 갖추고 사내 크리에이터를 맞이한다.

크리에이터로 거듭나고 싶은 이들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개인장비나 소품 이용도 가능하다. 이용 가능 시간은 매주 금요일 오후 4~6시. 유선(02-2020-2794)으로 예약할 수 있다. 자세한 사용방법은 지니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경영전략실 2theC스쿼드 권기범

'스튜디오 19' 사용방법 영상은 지니에서 확인하세요



<하트시그널> 시즌2도 시즌1에 이어 중국 수출



중국에 포맷을 수출한 <하트시그널> 시즌2 포스터.

<하트시그널>이 다시 한번 중국 대륙을 뜨겁게 달군다. 올해 6월중 중국판 <하트시그널> 시즌2가 온라인에서 방송된다.

지난해 <하트시그널> 시즌1의 중국판 프로그램이 방영돼 누적조회수 9억 3천만 건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누렸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이 출연해야 예능 프로그램이 성공하는 경향이 큰 데 <하트시그널>은 일반인 출연자의 비중이 높음에도 성공한 이례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게 현지 콘텐츠 업계의 평가다.

한편 채널A가 제작한 '원조' <하트시그널> 시즌2는 올해 대만, 홍콩에 판매돼 현지 방영을 앞두고 있다.

콘텐츠사업본부 콘텐츠세일즈팀 손다혜

동아이지에듀, 출산·육아용품 옥션커머스 '베키옥션' 론칭

(주)동아이지에듀가 4월 3일 출산·육아용품 옥션커머스 '베키옥션(bekiauction.com)'을 열었다.

'엄마가 정하는 가격'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의욕적으로 출발한 베키옥션은 유모차, 카시트 같은 출산·육아용품을 매일 정해진 시간에 옥션(경매) 형식으로 판매하는 신개념 옥션커머스다. 국내외 대표 출산육아용품 브랜드에 유모차, 카시트, 유아미용용품, 유아용장난감 등 다채로운 상품들이 매일 출품된다.

국내·외 브랜드 100여 가지 상품을 온라인 최저가 대비 평균 약 30% 저렴한 금액으로 만날 수 있다. 경매는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딱 3시간 동안 진행된다. 동아이지에듀 에듀동아팀 김수진

새 식구를 소개합니다

▼ New face

이름 / 부서 ① 입사 후 포부 ② 요즘 관심사 ③ 최종 직장 / 학교



황유진 /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 신성장동력팀

- ① 사령장을 받았을 때 마음가짐 그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② 반려동물 및 관련 산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 인기가 많은 1인 방송에도 호기심을 갖고 있습니다.
- ③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이소연 / 동아일보
AD본부 광고지원팀

- ① 새로운 것을 배우고 터득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동아일보에서도 새로운 업무에 대해 열정을 다해 배우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 ② 다양한 컨셉의 카페를 방문하여 여러 구도로 사진 찍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 ③ 명지전문대 세무회계과